

대구주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2012.1.1.(나해) 제1762호



† 금주의 성화

천상에 착좌하신

성모마리아

원죄 없는 잉태이시고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께서는 지상 생활을 마치신 후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에 오르셨다. 마리아께서는 구세주를 낳으셨으므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며, 구세주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에게도 어머니가 되신다. 하느님께서 이루신 인류 구원의 협력자요 첫 수확이신 성모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당신 품에 안고 계시는데, 이는 우리가 지상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몸을 모시는 영광을 드러내며, 성모님께서 교회의 모상이심을 보여준다.

이흥구(스테파노), 작품
한국가톨릭 이콘 연구소장

† 오늘의 전례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다.

여드레가 차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루카 2,16-21 참조)

오늘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고백하고,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영광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는 날입니다.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 이시면서 또 하느님이심을 믿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하신 주 예수님께서 성모님에게서 태어나셨으므로 우리도 성모님의 자식이 되고, 성체를 모실 때마다 예수님을 태중에 모셨던 성모님을 본받게 됩니다. 새해 첫 날이자 평화의 날인 오늘, 평화의 모후이신 어머니께서 우리 가정과 나라의 평화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2012년 교구장 신년 메시지

나눔과 화합을 실천하는 한 해 되길...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 모든 이들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간직할 수 있다면 평화로운 나라, 다툼이 없는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태도를 버리고 함께 살아가려고 애쓸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물질적으로 풍부해 진 것만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정치적인 갈등과 분배의 불평 등, 극단적인 의견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새 달력을 넘기며 올해는 더 화합하고 더 소통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만, 기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기원하는 뜻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남보다 많이 가지기만 원하고 베풀 줄 모른다면 계층의 양극화는 경기가 아무리 좋아진다 한들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주장만을 내세우며 남의 의견을 억압하거나 무시한다면 소통과 화합은 여전히 듣기 좋은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정책이나 제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재물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 것을 내어놓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범을 보인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가 자기 주변에서부터 나눔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작은 노력일망정 원망하거나 포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조금이나마 이 세상을 실제로 바꾸는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지만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변방의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몸소 노동을 하시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가진 것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외국 사람들과 따돌림 받는 이들을 가까이하셨으며, 마침내는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왕 중의 왕, 평화의 왕이라 부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자기를 내어놓고 나누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연다는 것은 희망을 갖고 노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와중에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자 노력한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며, 다시 한 번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2012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타대오

그러면 당신은…….



김호균 마르코 신부 / 기계성당 주임

나는 가수다.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인기 있는 가수들이 출연하여 평가받으면서 새 출발을 하고자 하는 그 열의에 박수를 보낸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노력에 결과에 상관없이 박수를 보낸다.

나는 품수다.

지역 정서상 야당성향의 인터넷 라디오 프로그램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진실과 선동이라는 이중성을 염두에 두며 듣고 있다. 정치적 유랑자로서 민(民)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에 대한 정치적 배신은 유권자의 몫이 아닌가? 자기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권력자들과 그 권력을 얻고 싶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우리는 외눈박이가 아니다.

나는 ○○다.

2011년 많은 말들 중에 “나는 ○○다.”로 회자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만큼 자신에 대한 자부심, 혹은 드러내고 싶은 노출증도 사회의 현상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과 자신의 주장을 그렇게 많이 부각시켰던 2011년, 우리는 과연 행복했었던가? 오히려 마지막 달력을 찢을 때까지 가슴 철렁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당신은 하느님의 어머니입니다.

‘나는’이라는 말 대신 ‘당신’이라는 존칭에 경의를 표한다. ‘당신은’이라는 말은 나를 내세워서 평가받은 것이 아니었다. 삶의 결론을 통해 얻는 결과물이었다. ‘나는 ○○다.’라는 경솔함이 묻어 나지 않는다. ‘당신은 하느님의’이라는 말을 통해 거룩했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삶에 대한 인정이었다. 나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였다. 어쩌면 2012년 우리가 살아가야하는 방향은 ‘나’ 혹은 ‘너’라는 말 대신 “당신”이라는 존칭,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실천이 아닐까? 나를 묻어두고 당신을 떠받치는 그러한 삶이 더더욱 그리워지는 것은 그 안에 행복했던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성모님, 당신은 하느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자녀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재현 베네딕토 신부 / 교구 청소년담당

부부 10쌍 중 4쌍이 이혼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부부생활을 마치 명에처럼 여기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또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자꾸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사회구조와 비뚤어진 관념들은 자녀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동안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특히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에게 미소 지으며 함께 있음을 즐기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더할 수 없는 '사랑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아이들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소리 지르고 막말을 쏟아내는 부모님 아래서 크는 아이들은 진정한 성장을 이루는 데에 어려움을 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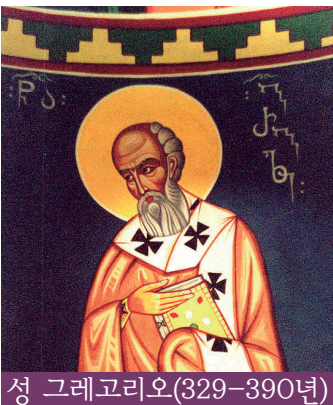
을 수밖에 없겠지요.

인류 분열의 역사는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 의 하나 됨이 깨어진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분열의 역사를 바로잡으려 오신 예수님의 공생활도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은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부부가 '너'이지만 또 다른 '나'를 받아들임으로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창세 2,23)이라는 '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 사랑이신 하느님의 신비에 자신을 개방하게 됨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서로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존경과 사랑의 법칙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자녀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또한 그들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요? 가톨릭주요

금주의 성인 **성 그레고리오와 성 바실리오**



성 그레고리오(329-390년)

성 그레고리오 주교 학자, 성 대 바실리오 주교 학자 (1월 2일)

이 두 분의 성인은 같은 시대(4세기)에 사셨고, 정통 교리를 확립하고 이단을 물리치는 데 큰 공로를 세워 함께 교회 학자로 불리며, 또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분 모두 열심한 교우 집안 출신으로, 그레고리오 성인의 부모님과 두 형제가 모두 성인이십니다. 바실리오 성인도 조모와 부모님, 누나와 두 동생이 성인품에 오르셨습니다. 두 분 모두 당대의 대 학자이셨고 문장가셨으며, 부유한 집안에서 나셨지만 일생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가톨릭교회는 평생 공적과 우정을 함께 하신 이 두 분 성인의 축일을 한 날에 함께 지냅니다. 가톨릭주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종교란?

종교(宗教)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란 뜻이고 본래 말인 라틴어는 Religio인데, 먼저 인간의 범죄로 끊어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심성과, 다음으로 올바른 인식을 통하여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경외심을 나타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하느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를 다루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창조주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밝히고, 거기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분을 깨달아 경건하게 실천함으로써 영생을 찾도록 가르칩니다. 사람이 조작해 낸 잡신을 모시는 행위는 미신이거나 사이비종교입니다.

가톨릭교회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능과 의지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가톨릭교회는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성경과 바른 가르침인 성전을 보존하며 모든 민족들에게 인류구원을 전하는 계시종교(啓示宗教)입니다. 또한 가톨릭교회는 하느님께서 예언자들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쳐 주

신 구원의 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가톨릭교회의 교리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분은 하느님과 인류 구원에 관한 믿을 교리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지켜야 할 십계명과 교회의 법규이며, 세 번째는 은총을 얻게 하는 방법인 일곱 가지 성사와 기도입니다.

십자성호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와 모든 일을 시작하고 끝낼 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와 인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자와 보호자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몸에 크게 십자표시를 합니다. 

지난 11월 16일 선종하신 고(故) 이상호 신부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해인 2010년에 어르신들을 위한 간략한 교리서인 <천주교 어르신 교리 수첩>을 집필하셨습니다. 신부님의 유작이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으리니 그 내용을 주보에 요약 게재합니다. <천주교 어르신 교리 수첩>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문화홍보실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의 미사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입 당 성 가 】	254 하늘의 여왕
【 제 1 독 서 】	민수 6,22-27
【 화 답 송 】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제 2 독 서 】	갈라 4,4-7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봉 헌 성 가 】	214 영원하신 성부
【 복 음 】	루카 2,16-21
【 영 성 체 송 】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든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 성 체 성 가 】	176 믿음 소망 사랑
【 파 견 성 가 】	240 복되신 마리아



† 대구불교총연합회, 교구장 대주교님 예방

대구불교총연합회 총회장 성문(동화사 주지) 스님과 신도회 간부들은 2011년 12월 22일(목) 오후 3시 교구청을 방문하여 교구장 대주교님께 성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성문 스님은 교구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오랜 역사를 가진 천주교대구대교구가 부러웠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 영광스러웠다.”고 전했으며, 대주교님께서 교구 100주년 3대 기념사업에 설명하시고 종교간 화합과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 예수 성탄 대축일 전야 미사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2011년 12월 24일(토) 오후 8시 진랑 천사의 집을 방문하시어 예수 성탄 대축일 전야 미사를 봉헌하셨다. 미사강론에서 대주교님께서는 성탄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설명하시며 “우리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주시기 위해 하느님께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시며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살아가자.”고 당부하셨다.



† 예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12월 25일(일) 오전 11시 계산동주교좌성당에서 예수 성탄 대축일 낮 미사를 봉헌하셨다. 대주교님께서는 “교구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하느님께서 축복을 가득 내려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주신 은총의 한해였다.”면서 복음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강생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기 바란다. 주님 성탄을 축하하며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파도림 받고, 몸과 마음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자.”고 강론하셨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월간 <빛>

† 다음주 주요 교구일정

- ▶ 2012년 1월 1일(일) 11:00,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계산주교좌성당
- ▶ 2012년 1월 7일(토) 15:00,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신년교례회 - 가톨릭교육원다동대강당

2012 새해소망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모임

예수의까리파수녀회 기다에 성소모임

일시: 매월 넷째 주일 14:00

장소: 예수의까리파수녀회 수원관구

문의: (010)3402-5232

<http://cafe.daum.net/vocatio>

2012년 작은형제회 겨울 성소피정

내주제: 모든 시간과 모든 때에

대학일반: 1.6(금)~8(일), 서울 성북동

중고등부: 1.17(화)~19(목), 서울 정동

문의: (010)9890-8809

살레시오수도회 성소피정

일시: 1.13(금)~15(일)

장소: 서울 대림동 수도원

대상: 남성 고3~30세

참가비: 3만원

문의: (010)3894-1332

살레시오 수도회 수도생활 체험

1차: 2.6(월)~9(목)

2차: 2.10(금)~13(일)

장소: 서울 대림동 수도원

대상: 남성 고3~35세, 참가비: 4만 원

문의: (010)7144-2150

피정 / 교육

청소년 조이플스테이

일시: 1.7(토)~8(일)

대상: 중2~고3, 회비: 2만 원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010)2649-2045

성 필립보 생태마을 2012년 여름 환경피정

주제: 지구 온난화

일정: 7.23(월)~8.26(일), 2박3일

비용: 8만5천원(7식)

문의: (033)333-8066, ecocatholic.co.kr

상장예식채보 김득수회장 초청 특강

기간: 2.4(토) 4기, 18(토) 5기, 3.10(토) 6기

내용: 가톨릭 장례예절과 연도는

이렇게해야한다

대상: 본당단체장, 선종봉사자, 연례회장단

문의: 대가대평교원, 660-5555~8

모집

2012년도 학산야간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기간: 1월~2월

내용: 검정고시 대비반(중고)

장소: 학산종합사회복지관(달서구 월성동)

문의: 634-7230

2012년 전기2차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입생 모집(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기간: 1.4(수)~10(화)

문의: 850-3637, 3584, <http://www.cu.ac.kr>

2012년 전기3차 대구가톨릭대 특수대학원

신입생모집(석사과정, 야간, 2년제)

원서기간: 1.4(수)~10(화)

과정: 경영, 디자인, 신학, 사회복지

보건과학대학원, 국제·다문화, 음악대학원

문의: 660-5512, <http://www.cu.ac.kr>

여대생의 뜰 기숙사생 모집

대상: 여대생, 대학원생 (종교무관, 숙식)

장소: 서울 성북구 정릉 국민 대 건너편

문의: 원죄없으신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02)911-7580, <http://www.rcm1892.net>

미사 안내

밀알후원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1월 2일 (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월 2일 (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5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2일 (월) 오전 11시	신평성당
제4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월 2일 (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꾸르실리스타 월례미사	1월 2일 (월) 오후 7시 30분	꾸르실로 교육관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성시간 및 미사	1월 2일 (월) 오후 10시	한티순례자의집
1월 후원자 가정을 위한 월례미사	1월 4일 (수) 오전 11시 30분	한국SOS어린이마을 2층 강당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1월 5일 (목) 오후 2시	성모당
성모의 기사화 미사	1월 7일 (토) 오전 10시	월배성당 내 수도원
푸른군대 첫 토요 신심미사	1월 7일 (토) 오전 11시	성모당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소중한 건강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경대연합내과의원
내시경·초음파·호흡기질환 전문
공단검진·각종 종합검진·예방접종
원장·전문의 이재욱(바오로)
(전 안동병원 내과과장)
☎ 475-3366 Fax. 475-3311
봉곡동 효성타운 효성스퀘어 1층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일반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한수위! 천년의미소 미술학원
CHUN NYUN UI MISO ART INSTITUTE
중등부·고등부 입시전문
언제나 내자녀처럼 최선을 다해 가르쳐겠습니다
명덕점 431-5005 수성점 741-3506
원장 이 해 록 (도미니크)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브란치스코(교우님우대할인)
중앙대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월푸드미소나리 출장 뷔페
내 가족의 음식을 만든다는 정신으로 일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식뷔페(결혼, 결혼, 결혼, 결혼 등)
기업체행사 (개업식, 회의 등) 성당행사, 한식뷔페, 장례뷔페
체육행사, 국밥, 도시락, 기타 모든 출장 뷔페 서비스
사회적기업(주)서구월푸드
H,010-7766-1486 T,053-555-4843 F,565-4843
www.miso-nari.co.kr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재단
대례사소비센터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청과·야채·선어·정육
신선·가공식품·공산물·생필품
생활·패션잡화·수입주방·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회관 맞은편)
대표이사 장영일(그리신도)신부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인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010-8345-9479
이주석 (요셉)

모임 / 행사

2012년 교구 청년 윤일제

일시: 1.13(금)~15(일), 2박3일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양캠퍼스
주제: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37)

문의: 교구 사목국 청년담당
422-6692

제21회 성 이윤일 요한제에 초대합니다

9일 기도미사: 1.12(목)~20(금) 15:00
순교기념미사: 1.21(토) 17:00
주례: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대구대교구 초등학교원 신앙대회

일시: 1. 29(일) 10:00~17:00
장소: 대구효성초등학교 대강당
대상: 대구대교구 소속 초등학교원
주최: 대구대교구 초등학교원사도직협의회

교구 평협 제단체장 연수

일시: 1.13(금) 09: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교구산하 신심 및
액션 단체 담당사제 및 임원

떼제기도회

일시: 1.14(토) 20:00, 삼덕성당

교육

제31기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학교

일시: 1.9(월)~13(금) 19:00~21:3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마감: 1.2(월) 17:00
문의: 교구 사목국 복음화담당,

250-3056

제5차 로고스 창세기(성인반) 연수

기간: 2.4(토)~5(일), 1박2일
장소: 교구청 꾸르실료교육관
참가비: 8만원
주최: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모집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일시: 1.5(목)~11(수)
문의: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653-7755, www.dgsay.net

다문화가정 공부방 봉사자모집

시간: 매주 일요일 오후
대상: 유치부~고 1학년
모집: (중고대학생제외)성인 교육관련자
내용: 1대1수업지도,
학년별그룹지도 1년담임제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노틀담 오르프 단기 지도자 과정

일시: 1.9(월)~11(수) 09:30~18:00
장소: 상인동 소화 어린이집
문의: (010)7392-1227 / (010)9034-4911
<http://cafe.daum.net/notredameorff>

제11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기간: 2차 2.26(일) 출발(8주, 12주)
3차 3.25(일) 출발(8주,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일시: 상시모집, 계산 문화관 5층
자격: 가톨릭 교인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이
(성악 비전공자도 가능합니다)

문의: 홍보위원장 송재용, (010)3352-8748
※ 신단원 교육: 3개월간 수습 교육

채용

상동성당 신자조합 여직원채용(1명)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자필이력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교적사본
문의: 764-0664

밀양성당 천상낙원(납골당)

직원 및 성당 관리인 모집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
우대: 대형면허 1종 소지자
문의: (055)356-4000
기타: 필요시 사택 제공

안내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
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박창근(요셉), 김의숙(베로니카)

전석재(이나시오)몬시뇰 추모미사 봉헌

일시: 1.7(토) 19:30, 범어성당

바느의 성모 79주년 발현 기념 감사 미사

일시: 1.15(일) 19:00, 다산성당
문의: 바느의 성모기도회, 427-7543

201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광고문안
사회복지 관련 사업체인 경우 추가로
교구 사회복지회 국장 신부님 추천서
광고료: 7면 13만 원, 8면 15만 원
문의: 문화홍보실, 250-3052

"아침묵의 결단이야기"

15년 경력·보장보험등록

국내 2006.04 매일신문 인터넷 (피플 "세상속으로")
국제 2009-2010 경북 공무원 교육원 다문화강사
<http://www.leestory.kr>

054)458-3223 수산나 010-6571-3385

리스토라클론정보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본관2층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아트피센터·여드름·레이저·모발이식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한결같은의원

가정의학과 / 소아과 / 피부과 / 내과
레이저클리닉 / 보톡스 / 필러

053)965-1441

반아일 이마트내 2층-원장 문세민 스테파노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결혼정보회사 노를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미팅횟수가 아닌 성혼에 주력하여 상담수료증을
이수한 사회복지사가 확실성있게 상담 해 드립니다.

상인점 롯데백화점·상인점 홀플러스 맞은편
대표 박영주(젤마), 박창열(대건안드레아)

☎ 053)639-8998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422-4423

감계남(크리스티나)



백두정형외과

관절경(어깨·무릎·팔꿈치·발목) 수술전문
정형외과전문의
의박사 원장 배덕두 (아우스팅) 원장 배성근 (베드로)
소아정형외과전문의 (신생아세부전문)의
의박사 원장 배상영 (미카엘라)

425-5919

평일 09:00~19:00
동인치안센터 건너편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안데스 호수소금

현영희(아네스)
박준구(베드로)

T.053-766-3815

010-2509-3217